주기도와 십자가(IV) - 나라의 임함과 형통
(마6:9~10)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주기도와 십자가 네 번째 시간으로 나라의 임함과 형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와 십자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일상적으로 생활화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자나 깨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희는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문설주에 기록을 해서 항상 그것을 가르쳐라.

그게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밤낮으로 앉을 때나 설 때나 무엇을 볼 때나 들을 때나 항상, 들을 때는 귀에다 십자가를 끼고 필터를 통해 듣고 볼 때는 십자가를 안경처럼 필터로 해서 우리 마음의 시선을 걸러서 보고 항상 이렇게 해서 살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서 십자가 속에서 의미가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십자가의 의미가 흐름을 이루게 돼요. 흐름을 이루게 될 때에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기도문을 잘하게 되는 이유가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면 그냥 그것이 십자가에서 솟아나는 의미의 샘물이 흐름을 이룰 때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내려가는 내용이 주기도문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다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순서대로 나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세 번째 구절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이 나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통치하시게 될 때에 이 말을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은 함부로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구절이라 이겁니다. 이 큰 일 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손에 시퍼렇게 칼날이 선 살아 있는 칼을 쥐어주는 것과 비슷한 일이 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구절이 어떠한 배경을 담고 있는 것이기에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거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인조 강도가 은행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합니다. 이럴 때 은행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는 5인조 강도 중에 누구 하나가 감시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올까봐 아니면 누군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은행장님 책상 밑에 단추가 있어가지고 단추를 누르면 경찰들이 삐뽀삐뽀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시해요. 그래 경찰이 현장에 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은행 강도가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은행 강도짓을 하고 있는 동료들을 배반해서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자리에 경찰이 오게 하는 거 바로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우린 다 죽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자로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임하셔서 통치를 해나가실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공의의 통치자십니다. 공의의 통치자님은 뒤에서 사바사바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좀 이렇게 잘못을 했다가도 뒤에서 사바사바해가지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공의의 통치자는 정해놓은 정의로운 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과 징벌을 통해서 통치를 해나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되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친구에게 욕 한마디 해도 지옥 불에 집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죄로 여겨서 지옥 불에 집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삶에 와서 통치하시게 될 때 우리가 3일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은행 강도의 자리에 경찰들이 오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20분 10분 5분 사이에 털어서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방에 있을 때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행동으로 지은 죄와 동일하게 여기셔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처벌하십니다. 그러면 3시간을 견딜 사람이 이 지구 위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쩌자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을 우리 입에 담아두시는 겁니까?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지구 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날마다 짓는 죄, 모든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마땅히 주어져야 될 죽음과 심판과 형벌과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명래 고약이 고름을 빨아들이듯이 이 지구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심판을 다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명래 고약을 상처에 바르듯이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보혈과 찢긴 살을 마음으로 먹고 바를 때 마실 때 정말 이 인류 역사상에 일어났던 그 어떠한 대반전도 따라올 수 없는 스케일과 깊이와 지레,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이 통치자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지옥으로 가거나 이 땅에서 조차 천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 될 정도로 죄인인 우리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빨아들이면서 이 지구 위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의 삶에 저주가 사라져 버렸어요. 형벌이 사라져 버렸어요. 심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이 되어 버렸어요. 십자가 하나 붙잡는데 3시간 1시간도 버티지 못할 천벌 받아 마땅할 죄인들이 천벌이 딴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자 되셔서 벌을 주시면 그게 천벌이지요. 그 천벌을 받아 죽어 마땅할 모든 죄인들이 십자가를 붙잡는 그 하나의 행위 때문에, 그 하나의 고백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이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기도하도록 입에 넣어주셨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냥 있을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땅을 이륙하는 로켓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 하늘을 향할 때 마음이 다순이 누나의 원리, 그냥 다순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니까 식모누나라고 그러죠. '식모누나의 원리'

오른 손에 빨래방망이 왼 손에 부지깽이 들고 나와서 도망오고 있는 나를 좇아오는 개를 향하여 막 좇아가는 그 식모누나의 원리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물려고 하는 모든 문제의 개들을 도망가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욥의 원리, '욥의 원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에 살이 되어 있을 만큼 내 마음이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까.
이름을 부르는 자가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상태로 가득히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요.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점령된 상태로는 다른 것에 의해서 선점된 상태로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욥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욥은 고통을 받았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게 욥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하게 하나님 한 분만 남도록 모든 게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 덕분에 고통 없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살이 된 것들을 다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보혈의 능력과 주님의 찢기신 살의 능력이 우릴 그렇게 다 뜯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로 대면할 수 있게.

돈 문제를 안고, 가족 문제를 안고, 자식 문제를 안고, 인생의 문제 이거 다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식모누나의 원리로 등지고 내팽겨진 것들 내 마음이 사랑하는 것들을 다 찢어서 낸 것들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남아 있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와 삶의 영역과 삶의 대상들, 사람들 그거 다 어떡합니까?

이제 그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마음이 갔을 때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날마다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첫 번째 너'가 하나님인 상태에서 나로 태어날 때에 내가 버리고 오고 내 마음에서 분리시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내팽겨 치듯이 놔두었던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대상들을 이제 나의 아버지가 다스려 가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가야지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내가 마음에서 다 떼어내고 아버지와 내가 처음으로 만나는 것처럼 만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에서 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실 때 아제 비로소 하나님의 소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실행하시는 일들만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이 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예요. 모든 일,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일까지 몽땅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하늘로 향하고 그리고 만날 수 있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 우리 마음이 모든 걸 다 떼어내서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다스림은 아버지로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창조하고 싶으신 역사를 창조하시지 못하고 십자가 이전에 나한테서는 내가 선택받은 인간인 한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은 십자가를 향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오직 십자가를 전하겠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 십자가를 깨닫고 아는 자리까지 나를 몰아가시는 다스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면 제2의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그랬죠? 근데 그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떡하든지 십자가로 이끌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식모누나의 원리와 욥의 원리를 통하여 하늘로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너로 해서 나로 태어나게끔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의 섭리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직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섭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의 내용이 충분히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로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전부 아버지의 통치가 어디로 임하느냐면 말입니다. 그동안 내가 통치자요 경영자가 되어서 어떡하든지 수고하고 애쓰면서 끌고 가려고 해봤던 모든 것에 다 임하고 있으니까 나 대신 하나님이 경영자 되셔서 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보는 거예요. 관찰이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실 때 보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관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광(觀光), 글자 그대로는 볼 관자에 빛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락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빛 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빛이 아니십니까?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에서 움직여 가시며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이젠 다시는 영영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관광, 빛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빛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은 관광하면 되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삶이 더 이상 먹이를 찾아 헤매는 동물처럼 이 땅을 부지런히 쳐다보며 쫓아다니는 사냥터가 아닙니다. 관광지가 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관광에 임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을 통치해나가실 때에 그 구석구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빛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바라보는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식후경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악과를 토해낸 상태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삶을 바라본다. 그러려면 식후경의 상태인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식후경이라는 게 뭐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살이 되어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낼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독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마음이 흡수하게끔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마음이 흡수하면 마음에 조그만 찌꺼기라도 남아 있으면 하나님은 못 들어오세요. 이 세상의 다른 무엇이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은 못 들어오시지요?

근데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흰 눈처럼 된 상태가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시는 것과 똑같은 그 상태를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주시게 됩니다.

이때 우리 마음은 여러분,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아무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고마워요. 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옆에 계셔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묶어 주시기 위해 활동하시는 것 그 성령님의 계심 자체가 얼마나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아무 것도 원하질 않게 됩

니다.

그래 기도가 이렇게 돼요. “아버지! 그냥 계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아버지 보좌 옆에 승천하셔서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성령님 계셔 주시기만 하면 고맙습니다.” 이 기도가 나와요. 이게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원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땅 위에서 원하는 게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저거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주세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원하는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그냥 계셔 주시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암이라도 걸렸다가 어떻게 치유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식을 향한 우리의 말이 어떻게 나갑니까? “아이구 이 자식아. 공부 못해도 좋고 직장을 못 잡아도 좋고 비리댕이처럼 살아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어다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에요. 거룩히 여기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잘 이루어져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전면적으로 주님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는 입장에 서게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어떡하다가 아버지가 하늘에 계십니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기도 밖에 없어요. 이런 기도가 나올 때에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아! 저거는 참새구나, 제비구나 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적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올 때 뭘 먹고 사는가? 아버지께서 먹이시는구나. 농사라고는 짓지 않고 돈이라고는 안 버는 저 제비가 평생을 먹고 사는 게 아버지께서 먹이시는구나…

먼지를 봐도 아버지가 보이고, 나무를 봐도 아버지가 보이고, 백합화를 봐도 아버지가 보이고, 평소 마음에 안 들던 배우자를 봐도 아버지가 그 속에 보이고, 자식 놈을 봐도 아버지가 보이고, 밉상이던 부장님을 봐도 아버지가 보이고, 온 천지에 다 아버지가 보여서 원수를 봐도 그 속에 아버지가 보입니다. 빌라도 위에 계신 아버지를 보시고, 가룟 유다 위에 계신 아버지를 보신 주님처럼 백합화에서 공중의 새에서 아버지를 보시는 주님처럼 만물 속에서 아버지의 빛의 역사를 봅니다. 빛이신 아버지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배가 부를 때에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게 다 없어지게 돼요.

이 놀라운 일이 성철스님처럼 수련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련을 해도 도달하지 못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안경 삼아서 귀에 보청기 삼아서 장애인의 휠체어 삼아서 나는 십자가 장애인이다 라며 휠체어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떠나지 못한다. 이거 하나 하면 이 모든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전 상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길이 잘 들어 있어요. 어떻게 잘 들어 있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치관을 따라서 미신 같은 신념체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검증되어 본 적이 없는 가치관과 신념체계들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슨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을 그런 신념체계나 가치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오늘 어제께 보다 수입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잘못. 0.001초 만에 전광석화처럼 판단이 내려집니다. 선악의 판단이 딱 되어 버립니다. 뭘 계획한 일이 잘 안 되면 에이 씨~부터 나와요.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안된 것이 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거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예요. 돈이 잘 안 벌리면 그게 잘 안 되는 거라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이런 고약한 버르장머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세계 안에서 돈이 덜 들어온다고 잘못 되는 거고 많이 들어온다고 잘된다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느 구멍에서 새어나왔기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초토화 시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수 세수 열수 앞 보면 우린 달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천수 만수를 내다봐요. 영원히 우리의 삶이 지속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이 순간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선악의 기준 호불호의 기준을 가지고는 미신 같은 신념체계들을 가지고는 도대체가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나가실 때 주이지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알 길이 없다 없다 없다 또 없다 또 없다에 20제곱 만큼 없다입니다.

근데 자꾸 빛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알량한 세상이 가르쳐 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잘 됐다 잘 못 됐다를 판단하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좀 당신 마음대로 마음껏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계획하신 소원대로 좀 이끌어 가시도록 선악과 먹은 상태를 벗어나서 좀 바라봐요. 좀 바라보자구요.

하여간 눈곱만한 일이 벌어지면 벌써 우리는 난리가 나는 거지요.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망하게 생겼다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일의 단계가 첫 단계가 망가집니다. 두 번째 단계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았던 변수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세 번째 단계의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더 악화됩니다. 근데 완전히 이젠 카오스가 됐어요. 혼란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대체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암흑 같은 카오스와 혼란과 혼돈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싹 이루어지는 거 경험해보셨어요? 여러분? 다 정리되고 나면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혼란과 카오스 속에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이 무의 세계에 창조의 질서가 생겨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창조의 질서를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일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라고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 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과 어

둠과 같은 단계가 일 단계 이 단계 삼 단계가 지나가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때에 일 단계 이 단계 삼 단계가 지나갈 때에 우리 마음이 배부르고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래갖고는 하나님 역사를 못 봐요.

그냥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카오스와 같은 혼돈이 주어졌다. 아, 뭔 뜻이 있겠지. 그 다음 단계를 하라고 한 것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 어, 또 잘못 됐네. 어, 이상하다… 관망하는 자세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단계 지나고 네 번째 단계 지났는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마치 저절로 퍼즐 조각조각 하나하나가 자기가 생명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다 찾아들어가고 쫙 해결이 됩니다. 큰일이고 작은 일이고…

큰일이라는 게 뭐 대단해요? 여러분? 돈으로 치면 천 억짜리 일이나 십만 원짜리 일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십만 원짜리 일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치나 천 억짜리 일에서 역사하신 가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치는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 억짜리 일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사람보다 십만 원짜리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더 큰 거예요. 오만 원짜리 일에서 만 원짜리 오천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영성이 큰 거고 은혜가 큰 거지요. 천 억짜리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천억도 티끌이에요. 일조도 티끌이고, 지구 위의 모든 나라의 일년 예산을 다 합쳐도 하나님한테는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만원어치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나 지구 값에 해당하는 수천 조에 해당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나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더 쉽고 어렵다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히 여기심이 잘 됨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배가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완전히 배가 부른 다음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꼭 붙잡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선악 판단 모든 미신적인 기준들을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돈 안 벌리면 큰일이다. 이 말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자식이 대학 못 들어가면 큰일이다. 이 말에 대해서 죽어요.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죽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죽어요. 그래야 빛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향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소 놀라워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마음이 거룩함이 회복될 때, 정결함이 회복될 때 식모누나의 원리와 욥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자리에 들

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관계하시듯이 내가 그렇게 관계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배부르게 됩니다.

배부르고 이 세상을 보면 어느 덧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 내 삶을 다스려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름답지 않은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게 없을 겁니다. 찬탄이 안 나오는 게 없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주어지면 정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 그게 정답이에요. 무조건 감사하고 보면 나중에라도 감사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왜 감사를 했어야만 하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면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불평, 결핍, 불만, 별의별 우울증, 두려움 다 생기면 그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조의 질서를, 빛의 세계를 그 일에 대해서 만들어내시고 말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 입장에서는 천하에 석학을 다 모아서 계획을 해도 계획조차 짤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십니다. 이 축복에 만분의 일이나 우리가 누리고 사는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안경 삼게 하시고 보청기 삼게 하시고 휠체어 삼게 하시므로 십자가에서 솟아나는 모든 의미의 샘물이 주기도문의 흐름을 따라 내게서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